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다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
전 6시 정각에 공개됩니다.

3. 가정주일

오늘은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어머니의 날로서 모든 어머니들께 사랑과 존경
을 담아 드립니다.

4. 봄소풍

5월 24일(주일) 봄소풍을 갈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날씨를 확인한 후에 단독
방을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5/3/26)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동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830.00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이우선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갈라디아서 1:11-24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내가 전한 복음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5/17/26	5/24/26
윤원신	봄소풍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1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다른 복음

바울은 분명히 구별하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유사 복음'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똑같이 하나님 얘기 하고 예수님 얘기하지만 방향과 본질에서 벗어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이것을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복음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건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란 내가 죽는 것을 가르치기 보다, 내가 사는 길을 가르치고, 내가 복 받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복음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고로 기독교의 타락은 결국 나라고 하는 자아를 부인하지 않게 된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가면 우리 인간을 흠이라고 묘사합니다. 흠이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호흡, 생명,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인간은 흠이고 먼지고 티끌에 불과한 죽은 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죄란 죽은 흠이 살아 있는 척을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죽은 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인정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죽은 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시험, 연단, 고난, 다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가 복으로 여기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심으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아브라함에게 보여 주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으며. 그것은 수풀에 걸린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바울 역시 육체의 가시를 가짐으로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여 은혜가 족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죽은 흠에 불과한 나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오직 그분이 내 안에 이루신 일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 그것이 복인줄 알기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돌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복음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